

2019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620호, 제1621호, 제1622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0년 5월 29일
4. 회부일자 : 2020년 6월 9일

II.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요

-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445억 4천 7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39억 9천 6백만원이며, 수납액은 424억 4천 5백만원임.
 - 세출예산현액 2,545억 5천 1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408억 7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6천 7백만원과 보조금반납액 13억 5천 3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1억 6천 1백만원임.

- 2019년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10억원임.
- 노동민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사회투자기금 등 총 2종의 기금을 운용 중으로,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은 2,815억 1천 3백만원, 사용액은 3,064억 1백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1,453억 2천 5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의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은 220억 6백만원, 사용액은 176억 7천 1백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132억 1천 7백만원임.

III.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39억 9천 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445억 4천 7백만원 대비 95.3%인 424억 4천 5백만원을 수납했음.
- 주요 세입 현황은
 -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총 9억 5천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총 71억 4천 2백만원으로, 과태료, 사·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임.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총 342억 8천 3백만원을 징수하였음.

- 미수납액은 총 14억 7천 5백만원으로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됨.

2. 세출 결산

가. 총괄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65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0억 2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510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545억 5천 1백만원임.

○ 이 중 2,408억 7천만원(94.6%)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31억 6천 7백만원과 보조금반납액 13억 5천 3백만원을 제외한 91억 6천 1백만원(3.6%)은 집행되지 않았음.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총 3건, 7억 8천 5백만원으로 전용을 통해 증액된 사업과 금액은 다음과 같음.

- 노동존중문화 확산(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백만원
- 노동존중문화 확산(특정업무경비) 2천 4백만원
-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사무관리비) 7억 5천 5백만원

○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2019.1.1.)에 따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의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등 3건, 3억 1천 6백만원이 이체되었음.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사무관리비) 3천만원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행사운영비) 2억 7천만원
- 기본경비 1천 6백만원

다.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4건, 10억 5천 8백만원으로 발생 사업과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시설비) 1천만원
-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5천 7백만원
-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9천 2백만원
-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행사운영비) 5억원

라.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1억 6천 7백만원임.

○ 명시이월은 총 3건, 21억 9천 7백만원으로 다음과 같음.

-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3억 7천 7백만원
-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8억 2천만원
-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10억원

○ 사고이월은 총 7건, 9억 7천만원으로 다음과 같음.

- 노동존중문화 확산 5천 8백만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2천 2백만원
-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7억 1천 4백만원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5천 3백만원
-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5천 9백만원
-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2천 3백만원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4천 1백만원

마. 집행잔액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91억 6천 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6%)으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정산잔액 16억 4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억 3천 1백만원
- 낙찰차액 2억 4천 3백만원
- 지출잔액 30억 8천 3백만원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세입·세출결산 개요

(1) 세입결산

-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445억 4천 7백만원에서 5억 5천 2백만원이 감소한 439억 9천 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24억 4천 5백만원을 수납했음(징수결정액 대비 96.5%).

< 2019년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44,547	43,996	42,445	1,475	96.5
세외수입	3,663	9,643	8,092	1,475	83.9
경상적 세외수입	689	1,047	957	97	91.4
재산임대수입	65	70	77	0	100.0
공유재산임대료	65	70	77	0	100.0
사용료수입	618	690	604	86	87.5
기타사용료	618	690	604	86	87.5
이자수입	6	288	277	11	96.2
기타이자수입	6	288	277	11	96.2
임시적 세외수입	2,973	8,595	7,142	1,378	83.1
과징금및과태료등	88	134	115	19	85.8
과태료	88	134	115	19	85.8
기타수입	2,610	6,774	6,605	169	97.5
시·도비반환금수입	1,173	5,106	4,947	159	96.9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그외수입	1,437	1,668	1,658	10	99.4
지난연도수입	275	1,687	422	1,190	25.0
지난연도수입	275	1,687	422	1,190	25.0
보조금	40,519	34,283	34,283	-	100.0
국고보조금등	40,519	34,283	34,283	-	100.0
국고보조금등	40,519	34,283	34,283	-	100.0
국고보조금	2,886	2,851	2,851	-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933	24,309	24,309	-	100.0
기금	10,700	7,123	7,123	-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5	70	70	-	100.0
보전수입 등	365	70	70	-	100.0
전년도이월금	365	70	70	-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65	70	70	-	100.0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10억 4천 7백만원 대비 91.4%인 9억 5천 7백만원을 징수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85억 9천 5백만원 대비 83.1%인 71억 4천 2백만원을 징수했음.
- 보조금은 총 342억 8천 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임.
- 미수납액 14억 7천 5백만원은 기타사용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7천 5백만원은 결손처리되었음.

(2) 세출결산

-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965억 4천 9백만원에서 580억 2백만원 증가한 2,545억 5천 1백만원임.
- 이 중 2,408억 7천만원(94.6%)을 지출하고, 31억 6천 7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억 6천 1백만원임.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19년도 세입결산의 징수액은 424억 4천 5백만원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9	44,547	44,547	43,996	42,445	1,475	75	-	96.5
2018	26,749	26,749	28,038	26,175	1,807	56	-	93.4
2017	22,847	22,847	25,688	24,663	1,026	-	1,026	96.0

-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4.7% 감소해 당초 추정 세입예산과 차이가 발생했고,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3억 3천 2백만원 감소했음.
-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있는 세부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예산액 대비 수납액 과부족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과부족액	발생사유
공유재산임대료	65	70	5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사용료, GSEF 사무국 사무실 임대료, 공정무역가게 매장 임대료 증가
과태료	88	115	27	방문판매등에 관한 범위반과태료, 할부거래법 위반과태료 등 미수납에 따른 이월액 발생
그외수입	1,437	1,658	221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예측치 보다 실제 반납금이 더 많음
기타사용료	618	604	△14	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미수납 발생
기타이자수입	6	277	271	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자가 발생하여 해당액 징수
시도비반환금수입	1,173	4,947	3,774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에 따른 이월액 발생
지난연도수입	275	422	147	보조금 미반환금을 연 3천만원씩 분할납부 받음

-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인 과목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임.
- 다음으로 과부족액이 많은 기타이자수입은 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자 발생, 그 외 수입은 민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을 과소 예측한 데 따른 것임.

- 기타사용료 중 6백만원은 예산 편성시 신규 개관한 전태일기념관의 사용료를 누락한데 기인함.

< 당초예산 외 징수된 예산과목의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사유
기타사용료 -전태일기념관 사용료	0	6	6	연중 개관한 전태일기념관 사용료를 편성당시 누락
기타이자수입 -(노동) 보조금교부 이자 -(공정) 보조금교부 이자 -(사경) 보조금교부 이자	0	8	8	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자가 발생하여 해당액 징수

- 미수납액 발생 주요 사유는 납세태만이 58.6%(8억 6천 5백만원), 기타 사유가 31.4%(61억원)임.
- 지난연도수입 중 총 45건은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등의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결손 처분된 바, 남은 미수납액에 대한 납부 독려를 통해 결손의 추가 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 결손처분 발생 내역 >

(단위 : 건, 천원)

예산과목	건수	금액	상세내역 및 사유
지난연도수입(소상과)	15	15,043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등 소멸시효 도래
지난연도수입(공정과)	30	60,298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등 소멸시효 도래

- 세외수입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항목이기는 하나 과소 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누락없이 포착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다.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965억 4천 9백만원 대비 580억 2백만원(전년도이월액 70억 2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510억원) 증가한 2,545억 5천 1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4.6%인 2,408억 7천만원이 지출되었고, 31억 6천 7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1억 6천 1백만원(3.6%)이 불용됨.

< 최근 3년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9	196,549	7,002	-	-	-	254,551	240,870	3,167	9,161 (3.6)
2018	145,461	3,551	-	-	-	149,012	134,594	6,784	7,632 (5.1)
2017	180,335	5,656	-	-	-	185,990	166,168	3,551	16,270 (8.7)

- 이는 2019년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율인 1.8% 대비 높은 수치로,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되는 바임.

(1)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2019년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3건, 7억 8천 5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예산 전용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 과 목			금 액		전용 승인 일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120,000	23,950	-	2019- 08-28	조직개편(2019.1.1.)에 따른 정·현원 증원
노동존중문화 확산	특정업무경비	48,600	-	23,950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96,050	6,050	-	2019- 08-28	조직개편(2019.1.1.)에 따른 증액필요분 확보
노동존중문화 확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275	-	6,050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0	755,000		2019- 11-18	생활상권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직접 사업을 통해 향후3개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필요성 대두
	사무관리비	900,000		755,000		

- 조직개편으로 현원이 증가됨에 따라 필요 인건비성 경비 또한 증가되어,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의 민간위탁금 중 3천만원을 각각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업의 특정업무경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함.
-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은 당초 자치구별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향후 3개년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억 5천 5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용과는 달리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로 운영되는 것임.
- 따라서 전용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예산의 계획적 운영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최소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체는 3건, 3억 1천 6백만원으로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변동과 업무조정에 따른 이체임(일자리정책과가 경제정책실로 이동, 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이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이동).

(2) 변경사용

- 2019년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4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시설개선을 통해 센터의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함.
 - 국비 세부사업명과 동일한 사업명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신규 개설하여 총 3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였음.

-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 ‘사회적경제 마켓’ 비용 5억원을 사업 성격에 맞춰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음.

<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금액		변경 승인 일자	변경 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자산및물류관리비	10,000	10,000	-	2019-09-17	센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 필요
	시설비	20,000	-	10,000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지역단체본부조	4,360,000	256,617	-	2019-09-17	국비 세부사업명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명 추가개설 및 예산현액 일부 조정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역단체본부조	989,114	-	256,617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지역단체본부조	4,103,383	291,589	-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역단체본부조	0	-	291,589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510,000	500,000	-	2019-06-17	서울 사회적경제 마켓 사업성격에 맞춰 통계목 변경 필요
	행사운영비	0	-	500,000		

- 예산의 변경 또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사업별·예산과목별로 예산의 집행

범위를 확정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19년 세출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1억 6천 1백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개 사업, 21억 9천 7백만원,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서 9억 7천만원이 발생했음.

- 전년도 이월 총액 76억 3천 2백만원에 비해 15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만큼 이월을 과도하게 남용하면 회계연도 구분이 문란하게 되고, 적정한 재정운영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이월액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명시이월의 세부 사유를 살펴보면,

-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은 공모일정 지연으로 공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비 등 시설비 일부를 이월하였음.

-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은 개선계획 마련을 통해 대상 상가 모집 공고 일정이 2019년 하반기에 진행되어 관련 사업비를 이월하였음.

-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복합 공간 조성예정 부지와 건물의 기부채납이 2020년 7월로 예정됨에 따라, 관련 공사비 전액을 이월하였음.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500,000	123,187	376,813	-	공모일정이 지연되어 당선작 선정 이후 설계용역 발주 심의 및 계약 일정을 고려하여 설계비 등 이월
2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1,000,000	180,000	820,000	-	'19.11월 사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자 선정, 리모델링 공사 진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이월
3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1,000,000	-	1,000,000	-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조성 예정 토지 및 건물이 '20.7월 기부채납됨에 따라 관련공사비 이월 필요

- 이처럼 명시이월 사유의 대부분은 사전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거나, 추경 편성이나 후속 과정을 신속히 진행했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임.
- 사고이월의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 노동존중문화 확산,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했음.
 -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용역 지연에 따른 것임.
-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등의 사업은 2018년에

이러 반복적으로 사고이월되었음.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노동존중문화 확산	357,500	259,612	58,250	39,638	서울지역 시설관리공단 노동실태 조사용역 사업계획 변경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210,800	174,581	22,300	13,919	용역 등 사업계획변경(용역 준공기한 연기 '19.12.16→'20.1.15)
3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1,891,070	1,116,788	714,453	59,829	사업추진 용역 지연
4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100,000	27,886	52,525	19,589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2월 용역 발주, '20.5월 준공 예정으로 사고이월
5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66,965	216,965	58,844	91,156	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체결 예정
6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899,165	797,720	22,525	78,920	용역기간 '19.6.12~'20.1.7 준공기한 미도래
7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45,000	2,932	41,000	1,068	협동조합 실태조사용역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일소요되어 사업기간 연장됨

- 이처럼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도말 반복 이월하는 행위는 재정 운영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바 주의가 요구됨.

(4)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단위 : 백만원, %)

- 최근 3년간 노동민생정책관의 불용률은 2017년도 8.7%, 2018년도 5.1%, 2019년도 3.6%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8%보다는 높은 수준임.

< 최근 3년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예산현액(A)	185,990	149,012	254,551
집행잔액(B)	16,270	7,632	9,161
비율(B/A)	8.7	5.1	3.6

- 집행잔액의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2019년도 주요 불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1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5,673	1,385	24.4	공모결과 선정된 센터 일부 개소지연으로 사업비 일부 불용
2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33	119	51.0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미개최, 사무국 미설치로 임대료예산 불용
3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300	120	40.0	'19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예산도 확대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수요가 증액된 예산규모에 미치지 못함
4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585	402	68.7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인지도가 낮아 신청자 확대에 어려움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5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4,136	671	17.2	사업의 완성도 제고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상인·주민 의견수렴 및 상점 경영 우수사례 등 기초조사를 여러차례 진행했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였으나 당초 예상시기보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짐
6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580	104	17.9	통상임대료 용역 실시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일부(상가임대차 등)를 대체하여 미운영
7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293	56	19.1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주기 조정을 통한 개최횟수 감소
8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75	12	16.0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운영으로 3개 지자체에서 비용 분담하여 집행잔액 발생
9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14,009	3,136	22.4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2,239백만원) 및 지연 교부(19.12.31. 450백만원)로 집행잔액 발생
1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3,772	872	23.1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385백만원) 및 지연 교부(19.12.31. 750백만원)로 집행잔액 발생

- 이 중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사업의 불용률은 40%를 넘고 있어 의회에서 예산으로 확정된 정책적 목표와 의도를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5) 사업별 검토

①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5억 9천만원의 예산현액 중 2억 1천 3백만원을 집행 (36.1%)하였음.

< 2019년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590	590	213	377	0	0
민 간 위 탁 금	90	90	90	-	-	-
시 설 비	500	500	123	377	-	-

- 기정예산은 6억 2천만원이었으나, 불용이 예상되는 3천만원(민간위탁금)을 전용하고, 사업이 지연된 시설비 3억 7천 7백만원을 명시이월함으로써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 대비 회계연도 내 실제 지출액 비율은 34.4%에 불과함.
- 이 사업은 2019년 추경을 통해 당초예산 3억 5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증액하였으나, 추경 증액분보다 많은 3억 7천 7백만원을 이월함으로써 결국 추경 증액의 필요성은 없었음.

< 2019년 강북 근로자복지관 운영 추가경정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620	350	270
- 민간위탁금	120	120	-
- 시설비	500	230	270

- 서울시는 2018년 이전까지 강북 노동자복지관이 입주해 있는 서울 혁신파크에 납부하는 관리비와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해 왔음.
- 그동안의 관리비 납부액을 살펴보면, 평균 6천 5백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른 불용액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집행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액 중 관리비 납부액	불용액 (A-B)	비고
2019	90,000	76,786	67,473	13,214	매월 관리비 납부 및 유지보수
2018	120,000	80,964	65,160	39,036	
2017	120,000	82,312	63,073	37,688	

- 2015년 이후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3천만원 이상의 불용액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해왔던 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2019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의 규모를 9천만원으로 축소하여 전액 집행함으로써 과다불용 원인을 제거하게 되었음.

- 또한 舊 서부수도사업소 청사로의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¹⁾ 비용과 설계용역비, 철거 공사비 등으로 5억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의 공모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비 등 3억 7천 7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 이 사업은 잦은 설계 변경과 지연 등으로 예산변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사전준비 미흡과 계획성 부족으로 한정된 예산이 적기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②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해, 2억 3천 3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1억 1천 4백만원(49.8%)을 집행하고, 1억 1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음.

< 2019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예산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합 계	233	112	2	119	50.2
사무관리비	109	44	-	65	59.6

1) 1개층 철거 후 증축, 전층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설치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민간경상사업보조	96	68	2	26	27.1
기타 자본이전	28	-	-	28	100

- 노사민정협의회는 2000년부터 노동자, 사용자, 서울시, 공익대표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법적 기구임.
- 그러나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는 연 평균 1회 개최되었으며, 그마저도 2018-19년에는 미개최되는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당초 서울시는 사무국 설치를 계획²⁾하였으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하반기에 개정(2019.12.16. 가결)됨에 따라 사무국 설치 또한 지연되었으며, 편성한 사무관리비 일부와 기타 자본이전(보증금)을 불용하게 되었음.
-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편성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 2019년 기준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155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40개소(25.8%, 광역 12개소, 기초 28개소)가 사무국 설치

③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침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운영 중으로, 2019년 3억원의 예산 중 1억 8천만원을 집행해 1억 2천만원(4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9년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예산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잔액비율(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사무관리비	300	180	180	-	120	40.0
사무관리비	300	180	180	-	120	40.0

- 마을노무사는 서울지역에 직무 등록된 노무사 중 선정³⁾하며,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무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임.
- 무료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노무사 규모(50명→150명)와 지원 대상(9인 이하 사업장→30인 미만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전년대비 161% 증가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마을노무사제도 실적 >

(단위 : 명, 개, 천원)

구분	소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대상	-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시행 사업장 수	1,025	78	264	322	361
지원금액	348,470	비예산	68,488	99,982	180,000

- 그러나 마을노무사가 3배 확대된 데 반해 실제 컨설팅 신청사업장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데 그쳐 예산 대비 40.0%의 불용율을 보였음.
- 이는 컨설팅 사업자 모집을 노무사에 의존하는 등 홍보가 부족하고, 컨설팅 지원 범위의 한계⁴⁾에 따른 것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예측하지 않고 사업 확대에만 치중했던 것으로 보임.
- 향후 이와 같이 사업현장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 없이 예산만 확대하여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업설계와 집행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3) 현재 142명 활동중

4) 2019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 요구가 증대되었음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 현액 5억 8천 5백만원 중 1억 8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 2백만원의 집행잔액(68.7%)을 남겼음.

< 2019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예산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잔액비율(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585	183	183	-	402	68.7
사무관리비	35	35	35	-	-	0.2
사회보장적수혜금	550	148	148	-	402	73.1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상황에서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들에게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시작된 사업임.
-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⁶⁾에 30%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지원과 동일하게 기준보수 1~4등급을 대상으로 설계하였으나, 지원대상을 전 등급으로 확대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5)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71.9%

6) 중소기업부 지원사업(기준보수등급 기준 1~2등급 50%, 3~4등급 30% 차등지원)

통해 1억 2천 9백만원을 증액한 바 있음.

< 2019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추가경정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585	456	129
사무관리비	35	10	25
사회보장적수혜금	550	446	104

- 그러나 사업 추진 결과, 1,172명⁷⁾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면서 편성예산의 70%에 가까운 4억 2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실제 고용보험 지원 금액인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액은 편성예산의 26.9%에 불과함.
- 2019년 기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3,096명⁸⁾에 불과한 상황에서 목표인원 4천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까지도 사장되는 불합리한 예산 운영 상황이 발생하였음.
-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인지도와 가입률이 저조하여 신청자 확대가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 설계 시부터 적정 지원 규모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7) 2019년 총 지급실적(11·12월분은 2020년 예산으로 집행-신청에서 지급까지 1개월 소요)

8) 2019년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

⑤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 주민생활 중심의 관계기반 생활상권⁹⁾을 조성하고, 지역 내 소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사업¹⁰⁾으로, 예산현액 41억 3천 6백만원 중 27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6억 7천 2백만원(16.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예산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잔액비율(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4,136	3,464	2,750	714	672	16.2
자치단체경상보조	2,245	1,633	1,633	-	612	27.3
사무관리비	1,891	1,830	1,117	714	60	3.2

- 이 사업은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억원, 사무관리비 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생활상권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설계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7억 5천 5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바 있음.

9) 도보로 이동해 생활 필수품 등을 구매하는 동네가게들로 구성된 상권

- 6차로 이하 도로변, 이면도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에 분포한 상점가
- 인근 주민이 주로 이용하며, 최근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유율이 높아짐

10) 세부사업으로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서울상인 선정 및 운영, 생활상권 사업 등을 운영중임

< 2019년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전용 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금액		전용인일자	전용사유
			강	증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0	755,000		2019-11-18	생활상권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직접 사업을 통해 향후3개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필요성 대두
	사무관리비	900,000		755,000		

- 이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에 사업 관련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운영으로 생활상권별 추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지역별 상인·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기초조사를 통해 최종 사업계획이 10월 말 수립됨으로써¹¹⁾ 전반적인 사업 시행시기가 지연되어 전체 예산의 59%만이 집행되었음.
-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에서 출발해 2019년에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가된 바, 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에 대한 촘촘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었어야 함.
- 서울시는 8곳의 생활상권 기반사업 대상지¹²⁾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과평가 후 5개 상권을 선정해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11) 선순환 지역경제를 위한 생활상권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4640, 2019.10.23.)

12) 영등포구 당산1동 일대/ 양천구 신정6동 일대/ 관악구 난곡동 일대/ 성북구 보국문로16길 일대/ 종로구 창신동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2동 일대/ 서초구 방배2동 일대/ 송파구 가락본동 일대

- 생활상권 기반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주민·소상공인·사회적경제 등 지역의 여러 경제 주체들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커뮤니티스토어를 조성하고, ▶ 우리농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손수가게’를 발굴·선정해야함.

- 이 경우 생활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의 출구전략 등 대책방안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사고이월되고 있는 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최근 2년간 사고이월 내역 및 사유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2018	2,905	2,209	236	460	200개 시장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으로 모집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현장조사 일정 지연
2019	1,891	1,117	714	60	사업추진 용역 지연

⑥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부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시행 중임.
 - 10년 이상,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률을 유지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보수비용·편의시설을 지원 중임.

- 2019년에는 10억 9백만원을 편성해, 1억 8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전체 예산의 81.3%인 8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 2019년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예산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009	1,008	188	820	1	0.1
사무관리비	9	8	8	-	1	11.1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	1,000	180	820	-	-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개의 상가에 19억 8천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젠트리피케이션과는 무관한 지역이 선정되어 임대인만 혜택을 받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장기안심상가 조성 실적 >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소 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상가 수	118	34	43	31	10
임차인 수	404	125	134	112	33
지원금액	1,980,616	669,868	565,564	565,184	180,000

-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2019.10.16.시행)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어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임대인들을 상생협약으로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19년 11월 장기안심상가 개선계획¹³⁾을 마련 하였음.

- 이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장기안심상가를 미선정하였고, 관련 예산 8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음.
-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2016년부터 운영되었던 사업인 만큼 본 예산 편성 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방향을 재설계하고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됨.

⑦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인건비(일자리창출), ▶기술개발·시제품 제작·판로개척(사업개발비),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역특화),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지원¹⁴⁾(사회보험료) 등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2019년에는 총 556개의 사회적기업¹⁵⁾과 17개의 자치구에 총 161억 6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역특화 사업은 예산의 100%를, 사업개발비 사업은 예산대비 95.6% 집행하였으나, 일자리창출 사업은 74.4%, 사회보험료 사업은 57%의 부진한 집행율을 보였음.

< 20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C=A-B)
합 계	(x15,664) 21,482	16,262	1,200	4,02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x10,506) 14,009	10,423	450	3,136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개발비)	(x2,100) 3,104	3,092	-	1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역특화)	(x418) 597	597	-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x2,640) 3,772	2,150	750	872

- 2018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 편성으로 편성예산 대부분을 소진¹⁶⁾한 바 있어, 2019년에는 사업비 부족을 예상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예산을 확보하였음.

< 20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x10,506) 14,009	(x6,467) 8,623	(x4,039) 5,386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개발비)	(x2,100) 3,104	(x1,820) 2,704	(x280) 400

13) 공정경제담당관-23249 (2019.11.11.)

- 평균 환산보증금(2단계→6단계, 1천 5백~3천 5백만원)과 임차상가 수(2단계→5단계, 최대 10백만원)를 세분화하고, 상생협약 임대료 인상률에 따른 차등지원 등을 통해 1개 상가 당 지원금액이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됨.

14)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9.95% 지원, 1인당 월 178,720원 한도

15) (예비)사회적기업 249개, 인증 사회적기업 307개

16) 사업개발비 사업만 약 7백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고, 나머지 3개 사업의 집행률은 100%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역특화)	(x418) 597	(x292) 418	(x126) 179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x2,640) 3,772	(x855) 1,221	(x1,785) 2,551

- 그러나 추경 편성 당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에 근거해 편성한 결과, 국고보조금의 감액 교부로 인해 국비 및 매칭 시비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음.

< 국고보조금 부족수령 현황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최종예산			국비수령현황		
	계	국비	시비	실수령액	부족 수령액	비율
일자리창출	14,009	10,506	3,503	8,267	△2,239	△21.3
사회보험료	3,772	2,640	1,132	2,255	△385	△14.6

- 이로인해 일자리창출 사업은 추경 증액분의 절반을 넘는 31억 3천 6백만원, 사회보험료 사업에서는 8억 7천 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 집행잔액 발생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사 업	계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일자리창출	3,136	897	2,239
사회보험료	872	487	385

-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4억 5천만원, 사회보험료 사업에서 7억 5천 5백만원의 보조금은 12월 31일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모두 반납처리되었음.

- 보조금의 과소·지연 교부는 서울시의 과오는 아니지만, 불합리한 국고보조 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며, 적정 수준의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요구됨.

⑧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 혁신성장거점·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앵커 또는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하였음.
- 이 사업은 홍릉, 창동·상계, DMC 등 혁신성장거점지역 내 앵커시설과 도시재생지 중 6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 시범적으로 1개소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

<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000	-	-	-	1,000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시 설 비	985	-	-	-	985	-
감 리 비	15	-	-	-	15	-

- 그러나 사회적경제 창업 공간, 교육·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 공간을 위한 규모있는 공공자산을 찾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2020년 7월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을 활용하게 되어 예산 전액을 이월한 것임.
- 사업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에 소재한 임대산업시설로 지하2층~지상 6층의 연면적 4,872㎡의 건물로 현재 지하골조 공사가 진행 중임.
- 예산 편성 당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사업 검토가 없이 예산 부터 편성한 결과로, 회계연도 내 집행 없이 전액을 이월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명시이월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임.
-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당초계획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거점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사업대상지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⑨ 사무관리비 집행 부진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사업은 총 53개로, 이 중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사무관리비 집행률 저조 사업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15	9	9	-	6	40.0
노동존중문화 확산	358	318	260	58	40	11.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109	44	44	-	65	59.6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300	180	180	-	120	40.0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14	4	4	-	10	71.4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10	7	7	-	3	30.0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100	81	28	53	20	19.6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56	42	42	-	14	25.1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485	381	381	-	104	21.4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293	237	237	-	56	19.1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180	133	133	-	47	26.4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20	9		-	11	57.4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10	7.5	7.5		2.5	25.0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8	4	4	-	4	47.6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45	44	3	41	1	2.4

- 이는 실행예산¹⁷⁾을 통한 예산절감 집행을 위한 행정운영방식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수는 행정수요 변화나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 기인해 있음.
-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은 전년대비 사업장을 확대하며 예산을 증액 하였으나, 현장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해 불용되었음.
-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시상식 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71.4%의 불용율을 보였음.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사회적경제 특구·생태계 사업단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비용을 절감한 것임.
-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은 홍보예산으로, 47.6%의 불용율을 고려 할 때,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됨.
-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의 불용율은 사고이월을 제외한 회계연도 내 실 집행율은 72.6%, 28% 6.7%에 불과하며, 모두 용역이 지연된 데 따른 것임.
- 경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는 예측 가능한 예산과목인 바, 집행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재원이 적기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집행 편의를 위해 일부 사업에서 행사성 경비, 용역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예산과목에 맞추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실행예산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은 절약된 금액을 투자 우선 순위에서 앞서는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연도 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추가경정예산과 병행 운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해야 할 것임.

⑩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 다음의 사업들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증액 사업 중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임.

< 집행잔액 과다 발생 추가경정예산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집행액	집행잔액
계	28,554	22,121	6,434	23,075	8,652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5,673	4,855	819	4,288	1,385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287	8,187	100	8,181	106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585	456	129	183	4025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14,009	8,623	5,386	10,423	3,136

-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한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17)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그 연도 내 실행에 적합하도록 재편성한 예산으로, 주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시 긴축한 예산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함

편성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분보다 많은 집행잔액을 남겨, 결과적으로 추경편성은 불필요했음.

-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 운영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목적에 맞게 회계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IV. 예비비 지출

1.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지출 개요

- 2019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10억원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비비 금액	예비비 사용 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1,000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융자지원

2.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2019년 8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자원을 지원하고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융자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을 수립하였음.
- 이 계획에 따라 예비비에서 51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출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들을 위한 특별 지원자금을 조성하였음.
-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져 전 업종으로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비를 통해 관련 재원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전출금 510억원은 직접유자비용으로 500억원(직접피해기업 지원), 시중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0억원(간접피해기업 지원)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했음.
- 그러나 실제 직접유자 실행은 단 2억원에 그쳤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중소기업자금으로 변경사용하였음.

(단위 : 건, 억원, %)

자금구분	지원대상	계 획		유자(대출)실행		
		당초	최종(A)	건수	실행금액(B)	실행률(B/A)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자금		2,000	1,600	4,152	1,291	80.7%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피해기업	500	100	3	2	1.7%
시중은행협력자금	간접 피해기업	1,500	1,500	4,149	1,289	86.0%

- 예측할 수 없는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따른 긴급지원이기는 하나, 예비비 편성 전에 지원대상 및 자금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추계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임.

V. 기금 결산

1.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 총괄 개요

- 노동민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 등 총 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말 조성액(A)	증감액			2019년도말 현재액(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170,214	△24,889	281,513	306,402	145,325
사회투자기금	8,881	4,336	22,006	17,671	13,217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1) 기금 조성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용자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에 설치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용자계정과 투자계정¹⁸⁾으로 분리·운용하고 있음.

18)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

- 2019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이하 “중기기금”)의 현재액은 2018년도 대비 248억 8천 9백만원이 감소한 1,453억 2천 5백만원임.

<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말 현재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170,214	△24,889	281,513	306,402	145,325

- 현재까지 중기기금의 조성 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7,617억 1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채투기금”) 예수금 2,380억원, 운용 손실 2,065억 5백만원으로, 총 7,932억 5백만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일반회계 전입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기금운용수익
793,205	761,710	238,000	△206,505

(2) 기금 운용 현황

- 2019년도 중기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4,517억 2천 7백만원으로, 용자금 회수의 증가로 당초 계획액 4,250억 4천 4백만원 대비 31억 183억원 증가했음.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810억원, 용자금 회수 1,681억 2천 5백만원, 용자금 이자 90억 8천 6백만원, 예금이자 33억 2백만원, 예치금 회수 1,702억 1천 4백만원, 기타수입(채투기금 예수금) 200억원임.

- 지출은 투·용자 사업비 2,678억 3천 5백만원, 비용자사업비 351억 8천 9백만원, 예치금 1,453억 2천 5백만원, 기금관리비 8억 6천 3백만원, 예수금 상환 25억 1천 5백만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수입·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입 결산				지출 결산			
구분	예산	결산	비고	구분	예산	결산	비고
계	420,544	451,727		계	420,544	451,727	
전입금	81,000	81,000		투자사업비	300,000	267,835	
용자금 회수	139,917	168,125		비투자사업비	40,890	35,189	
용자금 이자	6,413	9,086		예치금	76,036	145,325	
예금이자 등	3,000	3,302		기금관리비	1,000	863	
예치금 회수	170,214	170,214		예수금 상환	2,618	2,515	
전년도이월금	-	-					
기타수입	20,000	20,000					

나.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2019년도말 중기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453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8억 8천 9백만원이 감소했음.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말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말 조성액	268,270	197,010	195,613	170,214	145,325

- 중기기금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재투기금에서 200억원을 추가융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연도말 조성액이 감소하였음.
- 중기기금은 재투기금으로부터 총 2,380억원을 융자받았으나, 기금 상황 악화로 인해 2017년부터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상환 중이므로, 융자 상환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최근 5년간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상환잔액	288,000	218,000	218,000	218,000	238,000
원금상환	171,000	70,000	0	0	0
이자상환	4,338	2,880	2,398	2,398	2,515

- 2019년도 중기기금의 운용 규모 4,517억 2천 7백만원 중 예치금, 예수금 상환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3,038억 8천 7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사업비 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집행액	
합 계		303,887	
융 자 성 사 업	기금 직접융자	시설자금 : 설비투자, 임지지원등 시설자금 융자 지원	267,836
		재해·긴급자영업자금 : 재해,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융자 지원	
		경영안정화자금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기술형창업자금 : 기술 및 지식기반 창업기업 융자지원	
비 용 자 성 사 업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 은행협력자금 활용한 융자지원 후 이차차액 보전	33,558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드림머니 유지보수 :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유지보수	120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를 위한 드림머니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고도화 사업	964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자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46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지원 업무위탁 평가 수수료, 사후관리 수수료,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등	863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은 중기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지원하는 구조로, 중기기금에서는 기금 직접 융자비용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기금 운용에 필요한 비융자성사업비를 지출함.
- 2019년 중기기금의 직접융자는 2,678억 3천 6백만원, 시중은행협력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335억 5천 8백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음.

-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 재정 사정 악화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운용을 확대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멸성 이차보전금의 지급으로 인한 기금 운용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 유치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규모 및 이차보전 지출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협력 자금지원	계 획	10,000	8,000	8,100	8,000	14,000
	대출실행	9,650	7831	7,986	8,053	13,563
이차보전금 지출액		421	389	346	326	336

- 서울시는 2019년 중기 기금 3천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4천억원 등 총 1조 7천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48,542개 업체에 1조 6천억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대비 94.6%의 실적을 달성 하였음.

- 2019년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중소기업자금 규모를 확대하였음.

- 관련 자금은 예비비 510억원이 추가 전입되었고, 이에 따라 한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계 획 (A)	용자(대출)실행				
		건수	실행금액 (B)	실행률 (B/A)		
합 계	17,000	48,542	16,079	94.6%		
중소기업육성자금	3,000	5,959	2,516	83.9%		
시설자금	400	71	335	83.8%		
경영안정자금	소 계	2,600	5,888	2,181	83.9%	
	성장기반자금	500	507	475	95.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69	116	58.0%	
	긴급자영업자금	1,300	4,918	1,283	98.7%	
	재해중소기업자금	500	391	305	61.0%	
	일본수출규제피해 기업자금(직접피해)	100	3	2	1.7%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14,000	42,583	13,563	96.9%		
일반자금	소 계	12,140	37,428	11,925	98.2%	
	경제활성화자금	10,840	32,941	10,636	98.1%	
	창업 기업 자금	컨설팅기반 창업	200	534	189	94.5%
		일반창업	800	3,559	797	99.7%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300	394	303	100.9%	
특별자금	소 계	1,860	5,155	1,638	88.1%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5	6	97.1%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120	92		
	사회보험 가입촉진자금	200	648	205	102.8%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60	223	46	76.1%	
일본수출규제피해 기업자금(간접피해)	1,500	4,149	1,289	86.0%		

- 다만 예비비를 통해 조성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자금은 초기 500억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한 데 비해 매우 저조한 신청으로 계획을 변경¹⁹⁾했음에도 2억원(최종 운용계획 대비 1.7%)의 자금만 지출되었음.
 - 중기기금으로는 직접 피해기업만을 지원했으며, 간접 피해기업을 지원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경우 계획대비 86%(1,289억원)의 자금이 융자지원되었음.
 - 중기기금의 직접융자는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해중소기업자금으로 변경하여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지출되었음.
-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긴급지원이기는 하나,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및 자금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추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됨.
- 중기기금은 경기 하방국면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일본 수출규제나 재해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음.
- 서울시는 중기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19) 제4회 기금운용심의회(2019.10.1.) 500억 → 300억(감 200억)
 제6회 기금운용심의회(2019.10.25.) 300억 → 100억(감 200억)

3. 사회투자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1) 기금 조성 현황

- 서울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을 설치하고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중에 있음.
 - 2019년도 말 사투기금 현재액은 2018년도 대비 43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132억 1천 7백만원임.

<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말 현재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8,881	4,336	22,006	17,670	13,217

- 사투기금 조성 이후 현재까지의 총 조성 규모는 738억 5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34억원과 운용 수익 4억 5천 4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 조성 현황²⁰⁾ >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
73,854*	73,400**	454***

(2) 기금 운용 현황

- 2019년도 사투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308억 8천 7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입 결산				지출 결산			
구분	예산	결산	비고	구분	예산	결산	비고
계	30,222	30,887		계	30,222	30,887	
전입금	15,600	15,600		용자사업비	20,500	16,350	사고이월 375
용자금 회수	6,536	5,602		비용사업비	1,970	1,320	사고이월 864
용자금 이자	425	406		예치금	7,752	13,217	
예금이자 등	135	287					
예치금 회수	7,526	7,526					
전년도이월금	-	1,355					
기타수입	-	111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6억원(노동민생정책관 일반회계 130억원, 주택건축본부 일반회계 26억원²¹⁾), 용자금 회수 56억 2백만원, 용자금 이자 4억 6백만원, 예금이자 등 2억 8천 7백만원, 예치금 회수 75억 2천 6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5천 5백만원, 기타수입 1억 1천 1백만원임.

- 지출은 용자 사업비 163억 5천만원, 비용사업비 13억 2천만원, 예치금 132억 1천 7백만원이며, 용자사업비 중 3억 7천 5천만원, 비용사업비 중 8억 6천 4백만원 등 총 12억 3천 9백만원이 사고이월됨.

나.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기금 총괄 검토

- 2019년도말 사투기금의 조성액은 132억 1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56억원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43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했음.

< 사회투자기금 연도말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말 조성액	37,975	32,757	22,857	9,926	12,520	8,881	13,217

- 사투기금의 채권 잔액을 살펴보면, 2019년말 현재 594억 3천 9백만원의 용자지원 규모에 비례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미회수·부실채권의 원활한 상환과 회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 * 2019년 말 시금고예치금(13,216백만원), 2019년 말 채권현재액(59,438백만원),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 누적(1,200백만원)

** 2013년도 전출금 : 500억원, 2016년~18년 : 매년 26억원, 2019년 : 156억원

*** 민간자금 매칭 제외 기금운용수익만을 산출

21)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참여자에 대한 용자분이며, 주택건축본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5년간(2016~20년) 매년 26억원(총 130억원) 출연

<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채권 잔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별 채권 잔액		15,790	25,388	40,462	41,335	48,691	59,439
채권 이월액 (A-B)	53,829	4,890	9,598	15,074	873	7,356	10,748
지출 융자금(A)	85,189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6,350
수입 융자원금 상환 (B)	31,360	2,598	5,014	5,590	9,011	5,710	5,602

- 사투기금은 현재까지 총 1,185억 4천만원의 자금으로 635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였음.

< 사회투자기금 총 융자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융자금액	합계	118,540	21,123	9,348	15,954	21,331	13,356	18,171	19,257
	市기금	90,464	10,900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3,850
	민간기금	28,076	10,223	1,860	1,342	667	3,472	5,105	5,407
지원건수	635	72	44	81	65	170	137	67*	

* '19년도 지원건수의 경우, '20.5월까지 기업융자 진행 중
 ※ 수행기관 융자실행 기간('19.5월~'20.5월)

-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의 추가 지원 없이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사업별 검토

- 2019년도 사투기금의 운용규모는 308억 8천 7백만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 224억 7천만원 중 지출액은 176억 7천만원(집행율 78.6%)이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융자성 사업비는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소셜하우징 융자,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등에 163억 5천만원임.
 - 비융자성 사업비는 임팩트 투자조합의 출자, 수행기관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기관 지원과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 기금관리비 등에 13억 2천만원이 지출됨.

< 2019년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집행액
합 계		17,670
융자성 사업	소 계	16,350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융자>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금 등 또는 서울시 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대상 융자	10,975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창출 효과가 높은 우수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융자	
소셜하우징 융자	서울시 내 사회주택을 공급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주체 대상 공사비 등을 융자 지원 (18년도 사고이월 : 5억원)	2,875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민간의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사무·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시 융자지원	2,5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집행액
비용자성 사업	소 계	1,320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18년도 사고이월 : 8.5억원)	1,050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회적금융활성화를 위한 사업보조 (융자금액의 1%) (18년도 사고이월 : 5백만원)	112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	소셜벤처허브센터 임대료 지급(캠프기부금)	123
기금관리비	채권관리용역 및 담보설정 등 수행	35

※ 18년도 사고이월액 () 별도표시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면, 이들 기관이 기금과 1:1~3:1(기금 : 민간자금)로 자금을 매칭한 후 사회적기업에 채용자하는 구조로 운용됨.
- 2019년 사투기금의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11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158억 5천만원을 융자했음.

< 2019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채용자내역 >

('20.5월 말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수행기관	시 융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채용자 기업수	채용자 금액
합 계	15,850	5,832	21,682	116	14,005
소셜하우징 융자	2,375	795	3,170	8	2,910
나눔과미래	2,000	670	2,670	5	2,670
한국사회혁신금융(주)	375	125	500	3	240

('20.5월 말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수행기관	시 융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채용자 기업수	채용자 금액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9,325	3,852	13,177	89	8,885
동작신용협동조합	3,000	1,500	4,500	14	1,100
쥬비플러스	2,000	667	2,667	13	2,667
신목신용협동조합	1,500	500	2,000	14	1,538
한국사회혁신금융(주)	1,400	700	2,100	34	2,100
논골신용협동조합	720	240	960	7	530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705	245	950	7	950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1,650	560	2,210	19	2,210
신나는조합	900	300	1,200	9	1,200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750	260	1,010	10	1,010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2,500	625	3,125	-	-
동작신용협동조합	2,500	625	3,125	-	-

- 그러나 수행기관의 채용자 실적은 140억 5백만원에 그쳤으며, 이는 기금에서 수행기관에 융자한 금액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한편 2019년도 사투기금의 사고이월액은 총 12억 3천 9백만원으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사투기금의 운용방식 변경 이후²²⁾ 실제 사회적기업 지원까지의
- 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민간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기존 직접 융자 방식에서 서울시가 중간지원기관에 융자하여 사회적기업에 채용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시간차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사회투자기금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사고이월액	2,489	1,355	1,239

- 한편, 사투기금은 융자성사업 외에 비융자성사업으로 임팩트 투자²³⁾를 통해 사회적금융 투자 생태계를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조성하고, 10억원을 출자하였음.
- 2018년 11월 제1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에 이어 2019년 제2호 투자조합을 조성하였음.

< 서울시 출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개요 >

구 분	1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2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조합명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1호
운용사	다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조성시기	2018년 11월	2019년 9월
조성규모	145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 펀드 100억원, 대전시 1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150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 펀드 150억원, 우리은행 2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존속기간	8년	8년

구 분	1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2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투자현황	10개 기업, 80억원 (서울시 내 3개 기업, 33억원)	4개 기업, 40억원 (서울시 내 3개 기업, 35억원)

- 서울시는 제2호 투자조합 결성 시, 당초 계획한 출자금 10억원 중 2억원만 지출하고, 잔액 8억원²⁴⁾은 이월했음.
- 2020년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의 지출계획액은 18억 5천만원(1호 투자조합분 사고이월액 8억 5천만원 포함)으로, 이 중 10억 5천만원을 지출한 것임.
- 그러나 제1호 투자조합 조성 시에도 15%만을 우선 납입하고 잔액 8억 5천만원을 이월시켰던 만큼 기금운용계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여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
- 한국의 임팩트 투자는 아직 걸음마단계로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소셜임팩트 투자를 시작한 만큼 당초 투자조합의 조성목적과 같이 사회적금융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임팩트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이밖에도 소셜벤처허브센터(이하 “센터”) 조성과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공동협력기관²⁵⁾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센터 운영을

24) 20% 우선 납입, 초기 조성 금액이 70% 이상 소진되면 추가 납입

25) 청년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2018.11.22.)

- 서울시 :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운영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공간 제공 및 운영비 지원
- 한국장학재단 : 고용취약계층에 창업가 교육, 취·창업지원

23) 수익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는데 따른 것임.

- 한편 기금관리비의 경우 지출계획 2억원 대비 17.5%인 3천 5백만원만 지출하고 있어, 추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집행추이에 맞춰 삭감 조정해야 할 것임.

< 사회투자기금 사무관리비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출계획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기금관리비(사무관리비)	200	35	63	102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